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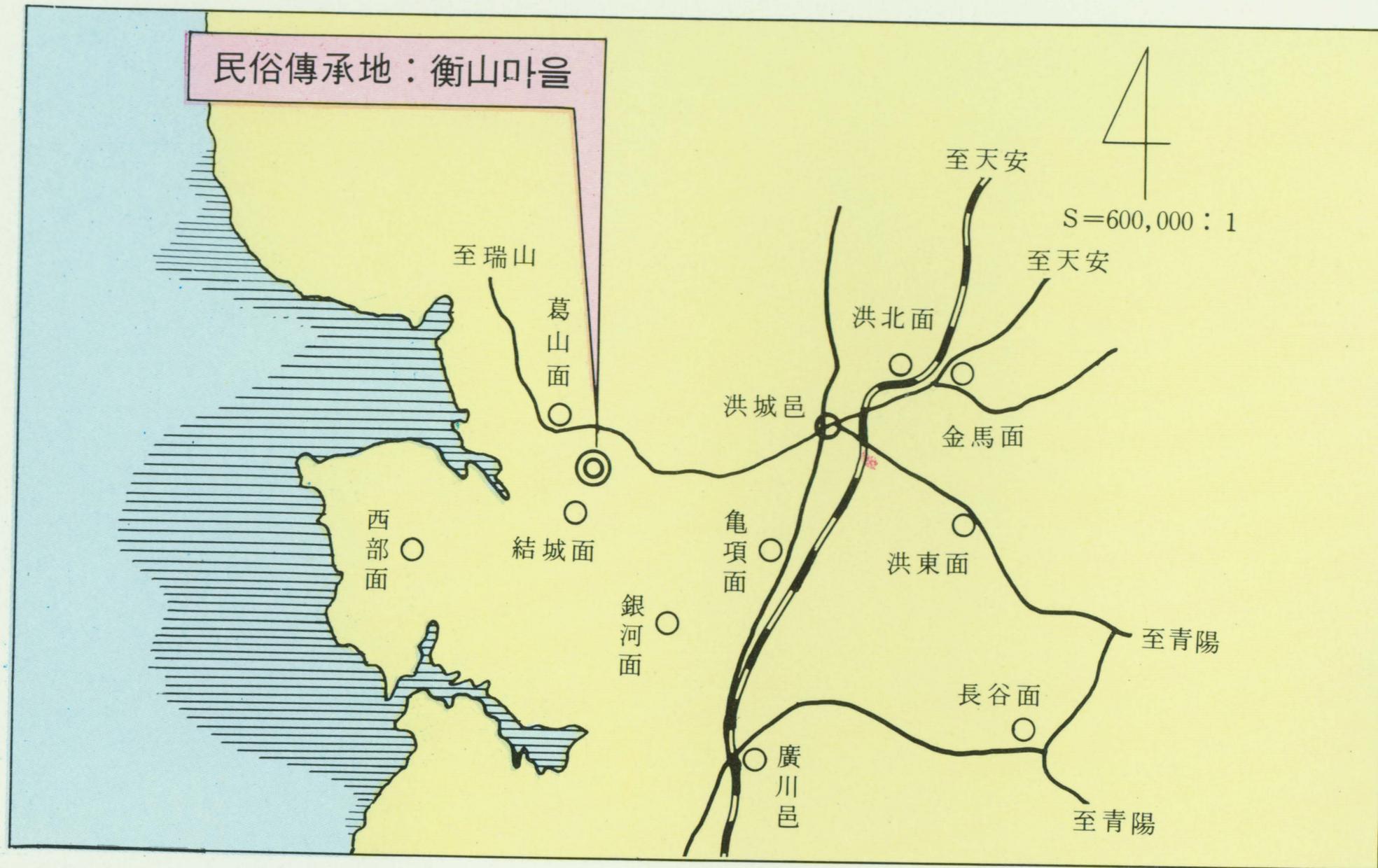
第 22 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 演 作 品

용 대기 놀이



忠 清 南 道



〔衡山마을 現況〕

(洪城에서 32km)
(大田에서 152km)

| 戶数 | 人 口 | | | 面 積 | | | | 職 業 別 | | | 土 姓 | | | | | |
|-----|-----|-----|-----|-------|------|------|-----|-------|-----|----|-----|----|----|----|----|----|
| | 計 | 男 | 女 | 計 | 田 | 畝 | 林 | 計 | 農 | 非農 | 計 | 趙 | 金 | 李 | 朴 | 其他 |
| 戶 | 名 | | | ha | | | | 戶 | | | 戶 | | | | | |
| 139 | 867 | 423 | 444 | 413.3 | 49.6 | 71.7 | 292 | 139 | 129 | 10 | 139 | 51 | 25 | 22 | 21 | 20 |

人事말씀



第22回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由緒깊은 港都 이곳 仁川에서 열리게 된 것을 3百萬忠南道民은 衷心으로 慶賀해마지않습니다.

뿌리없는 나무, 나약한 줄기에서 茂盛한 잎과 아름답찬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祖上의 숨결과 열이 담긴 民俗이야말로 民族의 뿌리요 生命이기도 합니다.

이번 저희 道가 선보이는 「용대기 놀이」는 洪城郡 結城面 衡山里 마을사람들이 3百餘年前의 원형 그대로를 傳承하여온 傳統 民俗이라는데 더욱 큰 자랑을 갖습니다.

소박한 농촌마을 사람들의 꾸밈없는 民俗에서 각별한 멋과 흥을 찾으며 生業에 힘써온 民族의 淸純한 뿌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제 우리는 大望의 '88서울올림픽을 契機로 悠久한 歷史와
빛나는 文化의 韓國을 世界에 펼쳐야 할 무거운 召命을 안고 있음
니다.

오늘의 이 「용대기 놀이」에서도 傳承民俗의 脈絡과 더불어
「藝鄉 忠南」의 眞髓를 이해하시는데 一助가 되리라 믿으며 더욱
아낌없는 聲援과 鞭撻을 懇曲히 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1981. 10. .

忠 清 南 道 知 事 李 啓 完



용대기 놀이

考 證 : 朴 桂 弘 (忠南大學校 教授)
構成演出 : 金 榮 均 (大田國樂 院長)
出 演 : 洪城郡 結城面 衡山里 洞民

* 由 來

용대기 놀이가 언제부터 始作되었는지 確實한 그 年代는

알수 없으나 李朝 純祖 때 洪錫謨가 지은 「東國歲時記」의 湖西俗編에 용대기와 農樂의 大目이 傳하여지며 多幸이도 衡山마을에는 約 160年前 (純祖 24 甲申 1824年)에 製作 保管되어 있는 “용대기”에서 또한 村老들의 口傳 등으로 미루어 보아 꽤 오래된 이 地方의 순수한 農夫놀이로 推定된다.

더우기 衡山마을은 지금까지도 용대기를 마을의 象徴으로 삼아 일 철만 되면 속칭 “용대기 배미”라 하여 마을 들 가운데에 揭揚하고 온 주민이 農樂의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일을 하면서 춤과 노래로 피로를 풀었던 이 “용대기 놀이”에서 肯定과 參與, 和解와 協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없이 所重한 民俗놀이로 傳授되고 있다.

* 解 說

○ 入 場

衡山마을 農夫들이 “용대기”를 앞세우고 農樂에 맞추어 춤을 추며 나온다.



○ 모심기 노래

〈후 렬〉

어럴렐렐~

상사리~

어럴렐렐~

상사리~

에헤에이여라~

상사리여~

〈선 창〉

한일자로~

느러서서~

입구자로~

심어갈제~

이농사를~

이리지어서~

누구하고~

먹자하구느냐~

어럴렐렐~

상사리여~



높으신 부모님 ~ 봉양 하고 ~
젊은 아네 ~ 배불리고 ~
어린 자식 ~ 먹자 하구느냐 ~
어럴 려려 ~ 상사리여 ~

신농 님이 ~ 씨앗을 주고 ~
하우 님이 ~ 비를 주었으니 ~
어찌 올도 ~ 풍년이 아닐소냐 ~
어럴 려려 ~ 상사리여 ~

또 드리 온다~

점심 바꾸니~

우리농군 참마취서~

어릴렐렐~

오늘 해도~

오늘 해도~

올목 골목~

어릴렐렐~

추야공산~

모란 황국이~

날든 잡새~

어릴렐렐~

또 드리 온다~

또 드리 온다~

점심 바꾸니 또 드리 온다~

상사리여~

다간나 베~

다간나 베~

연가가 난다~

상사리여~

날저문데~

다북엇네~

집찾어 간다~

상사리여~



○ 논매기 노래

〈후 렬〉 열카 덩어리~

〈선 창〉 물속으로 구신뎡이~

물밖으로 자처뎡이~

우리들이 이렇게 놀다간~

하나만 없으면 적막강산이지~



농사 하면 천하지 대본~
우리 농부 흘린 땀이~
구십월에 열매가 맺네~
우리동네 넓은 들이~
벼알이 당개당개 달렸구나~



○ 빠른소리

| | |
|------|--------------|
| 〈후렴〉 | 얼카 덩이 |
| 〈선창〉 | 얼카 덩이 |
| | 어거차 덩이 |
| | 우리 농부 |
| | 구슬땀을 흘렸으니 |
| | 이참일랑 막걸리로 |
| | 한사발씩 마셔나 보세 |
| | 어거차 덩이야 |
| | 어찌 그렇게 |
| | 요렇게 좋은가 에~야~ |

○ 논두벌매기 노래

〈후 령〉 어이~얼싸~에루화~삼마야라~
두리두리~둥개둥개~내사랑아~
어이 에이야~

〈선 창〉 나는 좋네 나는 좋네~
총각 낭군이 나는 좋네~
어이 에이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삼산 큰애기 도령님 아니냐~
어이 에이야~

이배미 저배미 열두배미~
모두다 홀터라 이 들판을
어이 에이야~



○ 몬 들 (논두벌끝맷음) 노래

〈후 렴〉 어화 맷돌이야~
〈산 창〉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절씨구
어느 낭군이
나를 찾으랴
임은 내임이
핑장이 좋구요

옷은 새 옷이
입기가 좋다
어화 맏돌
어화 맏돌
어화 맏돌
어화 맏돌

여 ~ 히 ~





○ 형·아우 次序타툼

座上은 용대기에 술잔을 올린 다음 농부들에게 수고들 많이 하였으니 술과 밥을 먹자고 권한다.

부녀자들이 가져온 술과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침 다른 부락의 농부들이 또 하나의 용대기를 앞세우고다가선다.



이때 座上들이 용대기의 형·아우 시비가 벌어져 두 부락의 농부들은 용대기의 기봉 뺏기 싸움이 벌어진다.

좀처럼 승부가 결정되지 않자 座上들간에 上座 용대기를 모셔다가 판결을 받기로 합의한다.

上座 용대기가 등장하여 용대기의 제작년대로 형·아우의 次序가 결정되면 아우 용대기는 정중한 사과의 예를 드린다.



이렇게 화해가 성립되면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흥겨운 농악과 가무로 절정을 이루면서 서서히 退場한다.

出 演 名 单

| 姓 名 | 年 令 | 性 别 | 担 当 役 |
|-------|-----|-----|-------|
| 조 문 행 | 54 | 男 | 상 좌 상 |
| 김 상 현 | 57 | " | 좌 상 |
| 장 재 창 | 56 | " | " |
| 김 병 운 | 28 | " | 영 기 |
| 김 중 대 | 20 | " | " |
| 진 교 석 | 23 | " | " |
| 강 신 호 | 23 | " | " |
| 최 재 봉 | 35 | " | 기 수 |
| 박 본 선 | 47 | " | " |
| 민 강 일 | 44 | " | " |
| 진 교 은 | 31 | " | " |
| 김 달 순 | 45 | " | " |
| 이 중 하 | 49 | " | " |
| 이 환 중 | 39 | " | " |
| 박 인 섭 | 43 | " | " |
| 조 병 훈 | 47 | " | " |
| 김 병 환 | 39 | " | " |
| 조 관 행 | 48 | " | " |
| 성 기 원 | 53 | " | " |
| 조 길 행 | 42 | " | " |
| 조 장 행 | 35 | " | " |
| 조 전 행 | 23 | " | " |
| 조 병 태 | 57 | " | 상 최 |
| 김 모 현 | 51 | " | " |
| 오 장 식 | 39 | " | 부 최 |

| 姓 名 | 年 令 | 性 别 | 担 当 役 |
|-------|-----|-----|-------|
| 조 인 행 | 38 | 男 | 부 최 |
| 김 선 옥 | 57 | " | 징 |
| 이 돈 영 | 54 | " | " |
| 이 정 춘 | 42 | " | " |
| 박 한 수 | 49 | " | " |
| 조 병 돈 | 52 | " | 북 |
| 김 중 근 | 45 | " | " |
| 김 선 인 | 65 | " | " |
| 조 윤 행 | 43 | " | " |
| 조 하 원 | 60 | " | 장 고 |
| 김 문 식 | 44 | " | " |
| 박 문 섭 | 49 | " | " |
| 이 중 철 | 55 | " | " |
| 조 선 행 | 51 | " | 호 적 |
| 김 창 규 | 12 | " | 무 등 |
| 성 유 진 | 12 | " | " |
| 이 정 오 | 12 | " | " |
| 김 기 산 | 60 | " | 농 부 |
| 박 수 길 | 22 | " | " |
| 박 창 배 | 51 | " | " |
| 김 기 한 | 36 | " | " |
| 박 금 화 | 52 | " | " |
| 이 영 식 | 33 | " | " |
| 이 희 교 | 29 | " | " |
| 김 천 권 | 29 | " | " |

| 姓 名 | 年 令 | 性 別 | 担 当 役 |
|-------|-----|-----|-------|
| 박 영 기 | 30 | 男 | 농 부 |
| 박 창 순 | 44 | " | " |
| 이 도 화 | 43 | " | " |
| 박 종 희 | 51 | " | " |
| 박 기 섭 | 26 | " | " |
| 조 성 모 | 53 | " | " |
| 조 병 각 | 40 | " | " |
| 조 학 행 | 48 | " | " |
| 조 영 이 | 45 | " | " |
| 조 병 남 | 41 | " | " |
| 조 봉 행 | 48 | " | " |
| 조 석 행 | 53 | " | " |
| 조 성 혁 | 34 | " | " |
| 조 성 봉 | 28 | " | " |
| 한 광 석 | 28 | " | " |
| 조 천 행 | 26 | " | " |
| 이 종 세 | 48 | " | " |
| 조 종 수 | 52 | " | " |
| 조 선 행 | 53 | " | " |
| 조 순 행 | 51 | " | " |
| 조 문 희 | 38 | " | " |
| 한 태 석 | 48 | " | " |
| 조 성 대 | 28 | " | " |
| 진 도 순 | 53 | " | " |
| 김 기 덕 | 30 | " | " |

| 姓 名 | 年 令 | 性 別 | 担 当 役 |
|-------|-----|-----|-------|
| 조 온 행 | 32 | 男 | 농 부 |
| 김 일 환 | 52 | " | " |
| 이 환 철 | 54 | " | " |
| 이 환 원 | 42 | " | " |
| 강 재 복 | 39 | " | " |
| 김 복 동 | 47 | " | " |
| 김 정 순 | 23 | " | " |
| 김 상 순 | 47 | " | " |
| 김 상 태 | 55 | " | " |
| 조 병 연 | 34 | " | " |
| 이 명 석 | 53 | " | " |
| 김 용 세 | 54 | " | 선 소 리 |
| 이 희 수 | 44 | " | 농 부 |
| 송 일 섭 | 59 | " | " |
| 유 금 순 | 46 | " | " |
| 이 명 자 | 31 | 女 | 아 낙 네 |
| 백 종 순 | 32 | " | " |
| 이 완 구 | 43 | " | " |
| 김 계 순 | 49 | " | " |
| 박 옥 금 | 46 | " | " |
| 인 대 희 | 37 | " | " |
| 조 종 희 | 49 | " | " |
| 조 영 애 | 38 | " | " |
| 최 춘 자 | 54 | " | " |
| 박 승 중 | 54 | " | " |

忠南道民의 노래

作詞 : 辛 承 祖
 作曲 : 金 泰 榮
 編曲 : 金 明 好
 選曲 : 林 元 植

Moderato

大韓半島 한 - 북 - 관 *ff* 화 려 한 - 고 - 장
 七 百 年 百 濟 歷 史 이 룝 - 한 터 전
 찬 란 한 - 옛 文 - - 化 *fp* 새 로 꽃 피 - - 위
 이 나 - 라 기 리 빛 널 *mp* 우 리 忠 - 南 - 道 맑 은
 바 람 밝 - 은 달 *ff* 타 고 난 - 기 - 상 忠 武
 精 神 드 - 날 릴 道 民 - 三 百 萬

예술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는 역사를 주도한다